

單位關係의 強度測定과 單位關係가 印象形成 및 偏見에 미치는 影響

洪 大 植

全北大學校 心理學科

본 연구에서는 社會的 知覺이나 態度에서 好感 要因보다 더 폭넓고 有意味한 개념은 單位關係라는 가정을 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3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첫 연구에서는 단위관계의 측정 문제를 다루었다. 單位關係 測定을 위한 예비적 척도로서 6個 척도가 理論的 根據에서 선정되었고, 총 131個의 單位關係들이 평정되었다. 각 평정치에 대해서는 平均 尺度價가 계산되었다. 6個 單位關係 測定尺度의 타당도는 문항-총점 相關이 .67에서 .81의 범위이었다. 두번째 연구에서는 單位關係 特性이 印象形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結果, 單位關係 特性이 印象에 有義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印象形成에서의 中心特性의 성질이 논의되었다. 세째 연구에서는 편견의 심리적 결정요인이 단위관계지각 요인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러한 가설에 따라 人種・職業 및 宗教의 세 영역내의 거리를 크거나 작게 조작하였다. 그 結果, 單位關係知覺 거리가 클수록 편견에 대한 영향이 더 컸다.

사회심리학에서는 행위자나 지각자인 나와 他人의 二者關係를 기본 인간관계로 간주하고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주로 연구하려고 한다. 二者關係의 분석은 군집경향, 호감과 매력, 공격, 이타성 등과 같은 행동적 특징에 따라 연구되어질 수 있고 최근의 사회심리학 교과서들도 이러한 식으로 내용들을 취급하고 있다(예: Freedman, Carlsmith, Sears, 1982; Baron과 Byrne, 1982).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행동들에 관한 연구들이 기저 요인으로 삼고 있는 것은 評價的 또는 好惡의 感情이라 할 수 있다. 印象形成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評價的 次元이 주요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Osgood, Suci 와 Tannenbaum (1957)의 語義細分 (semantic differential)에 관한 연구에서는 좋다-나쁘다의 評價次元이 대부분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多次元的 尺度法 (multidimensional scaling)을 사용한 Rosenberg, Nelson 및 Vivekananthan (1968)의 연구에서도 社會的 및 知的 評價의 次元들이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印象形成의 機制를 밝혀보려는 시도에서 Anderson (1965)은 주로 評價的인 次元을 중심으로 정보들이 어떻게 통합되는가에 대한 理論을 세워나가고 있다. 그리고 好感 (liking)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他人에 對한 正的인 評價를 일으키는 要因들을 究明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Jordan (1968)은 사람들이 사회적 세계를 이해하거나 인식하는 기본적 요인은 單位 (unit)의 次元이며, 모든 好感 (liking)의 次元에 속하는 특징들도 결국에는 단위 차원의 일부이거나 특수 케이스로서 간주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적 지각이나 對人知覺을 취급하는 논문들 중에서 단위관계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단위관계 지각의 원리를 처음으로 연구한 Heider (Heider 와 Simmel, 1944)의 논문을 자세하게 引用하면서, 單位關係 知覺의 원리를 지적하였다.

Heider 와 Simmel (1944)의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한 원반과 두개의 크기가 다른 삼각형이 간단하게 구조화된 場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본 바를 기술케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그러한 도형을 사람, 즉, 사회적인 대상들로써 지각하였고 도형들의 연속적인 운동을 조직화되고 변별되는 사상으로서 지각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피험자들은 간단한 지각적 과제에서 운동의 원인과 결과를 자발적으로 지각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사회적 사상들이나 사회적 행동의 지각은 물리적 대상의 지각과 다르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사상은 물리적 사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각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에 Heider (1958)는 單位의 개념을 정의하고 單位形成 要因들을 자세하게 규정하려고 하였다. 그는 別個의 실체들이 함께 소속되는 것 (belonging together)으로 知覺되게 될 때에 한 單位가 형성된다고 주장하면서 單位關係를 定義하고 있다. 그는 單位形成 要

인들은 형태심리학 실험들에서 발견되어 온 要因들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두 실체간의 유사성 (similarity), 근접성 (Proximity) 共同運命 (common fate), 좋은 연속성 (good continuation)과 심적 자세 (set), 과거경험 (past experience), 소유 (ownership)나 행위의 결과, 친숙성 (familiarity)과 상호작용 (interaction)의 요인들이 단위형성 요인이 된다고 열거하였다. 이에 더하여, Jordan(1968)은 호감이나 감정 (sentiment)의 관계는 單位關係의 특수한 케이스로써 보아야 하고, 호감관계를 사회적 단위형성을 결정짓는 특수요인의 하나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單位關係의 포괄성과 중요성을 強調하였다.

한편, 認知的 均衡理論의 맥락에서 單位關係의 次元이 매우 중요하다는 Heider (1958)나 Jordan (1968)의 지적과는 달리, 單位關係의 次元을 다루어 온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意思決定이나 選擇의 結果로 생긴 단위관계는 주로 Festinger (1957)의 認知不調和理論에서 다루어져 왔다. Heider의 認知均衡의 理論의 맥락에서 몇몇 연구가 앞으로의 相互作用의 期待를 조작하여 單位關係를 形成하고 그것이 對人的 好感에 미치는 效果를 조사하고 있다. Berscheid Boye 및 Darley (1968)는 負的인 토의 파트너에 대한 앞으로의 상호작용의 예상이 그에 대한 매력을 증가 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비슷한 결과는 Mirels와 Mills (1964) 및 Tyler와 Sears (1977)에서도 얻어졌다. 또한 Berscheid 등 (1976)은 앞으로 메이트하지 않을 사람보다는 앞으로의 메이트 상대에 대해 더 好感이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지금까지의 論議를 要約하면, 社會的 知覺, 感情 및 行動에서 單位關係의 知覺이 갖는 영향이나 중요성은 매우 큰 것 같으며, 理論的 概念으로서 好感關係와 區別되어지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다. 그러나 單位關係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그것이 갖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들은 상당히 드문 형편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單位關係를 記述하거나 測定할 수 있는 尺度를 발전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印象形成 分野에서 Anderson (1968)은 인물 형용사의 호오도 値를 얻음으로써 많은 연구를 자극하여 왔다. 이러한 數量化를 향한 努力은 單位關係의 知覺에서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 같다. 즉, 우리의 日常生活에서 知覺되어지는

單位關係를 記述하는 用語를 수집하고, 그것이 갖는 또는 일으키는 單位關係의 強度나 程度를 測定할 수 있다면, 이 分野의 研究에서 상당히 有用한 資料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單位關係의 程度나 強度를 취급할 수 있다면, 사회적 평가나 태도에 미치는 單位關係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研究의 목적은 (1) 單位關係 記述語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이 갖는 單位關係 強度를 測定하며, (2) 單位關係의 強度가 對人的 評價나 印象形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3) 單位關係의 強度가 偏見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즉, 첫 연구는 單位關係 強度를 測定하려는 시도를 위한 것이고, 둘째와 셋째 연구는 單位關係의 영향을 印象形成과 偏見의 分野에서 확장시켜 확인하여 보기 위한 것이었다.*

研究 I : 單位關係 記述語의 수집과 그 強度의 測定

이 研究에서는 單位關係 記述語를 수집하고 각 기술어의 單位關係 強度를 測定하려고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單位關係 知覺을 일으키는 要因들을 좀더 상세하게 검토하고, 이들 요인에 대해서 單位關係 記述語의 單位關係知覺 強度를 測定하는 것이 必要한 것 같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單位關係 知覺要因들을 다소 상세하게 검토하고, 이들 요인에 비추어 비교적 尺度化가 可能的인 尺度를 추출하고 예비적으로 이들 尺度를 사용해서 單位關係 記述語들의 單位關係 知覺 強度를 측정하려 하였다.

(1) 單位關係 知覺要因들과 尺度의 抽出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Heider (1958)는 別個의 실체들이 함께 속하는 것으로 지각될 때에 單位關係의 지각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單位關係知覺 要因들을 시사하였다. 여기에서는 Heider가 提示한 要因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尺度化에 사용될 수 있는 尺度들을 찾아보려 하였다. Heider가 提示

* 이하의 세 연구 중에서 첫 연구는 心理學科 4학년인 金錦淑이, 둘째 연구는 鄭性景이, 셋째 연구는 姜惠慈가 資料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과 처리에 수고해 준 데 대해 고마운 뜻을 표한다.

한 여러 單位關係 知覺要因들을 中心으로 그 概念들을 확장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㉔ 類似性(similarity) : 知覺 實驗에서 첫째로 인용되고 있는 원리는 아마 類似性이 될 것이다. 이미 Wertheimer 는 지각적 조직화의 법칙으로서 유사성, 근접성, 좋은 연속성, 공동운명 및 충만의 법칙(law of prägnanz)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적인 지각의 분야에서 유사성은 국적, 종교, 인종, 신념 등에서 유사성이 지각되게 될 것이다. 그밖에 사회계층, 직업, 철학이나 가치,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학년, 성별, 성격 및 신체적 특징, 습관이나 행동들도 유사성 지각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비슷하다—다르다는 尺度가 단위지각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㉕ 近接性(proximity) : 생활환경의 근접성은 好感의 주요 결정요인이 됨이 밝혀지고 있으며(예 : Festinger, Schachter 및 Back 1950). 도형지각에서 처럼 사회적 지각에서 작용될 것이다. 한 방에서 함께 지낸다든가, 이웃집에 산다든가, 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각적 특징에서 우리는 가깝다—멀다의 尺度를 單位關係 測定尺度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㉖ 因果性(causality) : 인과성은 사람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즉, 행위의 주체자와 그 행위로 인해 생긴 결과 사이의 관계의 지각이다. 그 척도의 예로서는 인과적 관계가 있다—없다가 있을 수 있다.

㉗ 所有(ownership) : 어떤 사람에 소속되는 사물들 사이에는 단위관계가 지각된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예에서와 같이 사회적 대상들에 대해서도 소유를 지각할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을 반영하는 척도의 예로서는 같은 편에 속한다—반대 편에 속한다가 있을 수 있다.

㉘ 共同運命(common fate) : 환경적 영향이 같거나 함께 이익과 손실을 받게되는 관계에서는 공동운명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외적과 맞서서 싸우는 국민들 사이, 상대방 팀과 백중의 경기를 하고 있는 한편의 선수들이나 관중들 사이, 동업자, 심지어는 공범자 사이에서도 공동운명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질을 반영하는 척도에는 같은 운명이다—반대의 운명이다와 같은 척도가 있을 수 있다.

④ 過去經驗 (past experience) : 과거 경험이 같거나 다른 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단위관계를 일으킬 것이다. 함께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다녔다든가 (學緣), 한 동네나 한 면에서 살았다든가 (地緣) 하는 특성들은 한국의 경우에서 크게 單位關係 知覺을 일으키는 특성들일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성질상 협동적이다—경쟁적이다. 끊을 수 있다—끊을 수 없다와 같은 특성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⑤ 親熟性이나 相互作用 (familiarity or interaction) : 앞으로의 相互作用의 期待나 以前의 相互作用의 記憶과 親熟性은 가깝다는 느낌을 일으키고 따라서 單位關係 知覺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성질을 反映하는 특성은 자주 만나다—전혀 만나지 않는다, 낯익다—낯설다, 앞으로 만나게 된다—앞으로 만나지 않게 된다고 같은 尺度가 될 것이다.

⑥ 好感 (liking) : Jordan (1968)의 주장대로 好感要因도 單位關係 知覺을 일으킬 수 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가깝고, 비슷하다고 지각될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멀고 다르다고 지각될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尺度는 좋아한다—싫어한다가 될 수 있다.

⑦ 其他 要因들 : Heider (1958)가 시사한 바와 같이 심적 자세 (set)나 기대, 좋은 연속성 (good continuation), 주위환경 (surrounding factor)도 單位關係 知覺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성질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척도를 찾기는 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2) 單位關係 記述語

單位關係가 갖는 評價의 및 行動의 影響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單位關係 知覺要因들에 따라 關係를 抽出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單位關係 知覺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관계를 추출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며, 그러한 작업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갖는 理論的 重要性도 의문시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單位關係 記述語가 社會的 評價나 行動에 중요한 의의가 있거나 그러한 것들에 영향이 클 것으로 간주되는 記述語를 選定해야 될 것이다.

한편, 社會的 評價나 行動의 예언에 관계가 많으리라고 간주되는 單位關係 記述語는 國籍—人種, 社會階層, 年齡, 學緣, 地緣, 血緣

및 宗教의 分野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記述된 바와 같이 單位關係 知覺要因이 理論적으로 規定되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의 對人關係의 分野가 또한 規定되게 되면, 우리는 각 對人關係의 特徵이 갖는 單位關係 知覺의 強度를 測定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單位關係 知覺要因들에서 몇개의 豫備的 測定尺度를 抽出하고 이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사회적 관계의 知覺이나 行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單位關係의 記述語나 特性의 單位關係 強度를 測定하며, 單位關係 測定尺度들의 妥當度を 檢討하고자 한다.

方 法

被驗者・全北大學校 어문계열 1학년 남녀 학생 70 명과 상과대학 및 법과대학 3학년의 학생 50 명이 평정자가 되었다. 이들은 모두 심리학개론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이었다. 이 가운데에서 반응누락자 10 명이 제외되어 총 110 명의 자료가 처리되었다. 평정자들 중 35 명이 여자이었고, 105 명이 남자이었다. 평정 항목이 많아서 질문지는 3 종류로 만들었으며, 편의상 국적-인종과 학연 관계들을 한 질문지에 지연, 종교 및 연령 관계들을 다른 한 질문지에 혈연과 직업 관계들을 또다른 한 질문지에 포함시켰으며 이들 각 질문지에 대한 피험자수는 각각 37 명, 38 명 및 35 명이었다.

材料 및 節次・피험자들에게 제시된 자료는 “대인관계에 관한 의견조사지”라는 제목이 붙은 16 페이지로 된 질문지이었다. 질문지는 평정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3 종류로 만들었다. 질문지들에 포함된 單位關係들은 國籍(또는 人種), 職業, 學緣, 地緣, 血緣, 宗教 및 年齡의 7 個 영역이었다. 각 영역에서 단위관계 항목들의 수는 국적이 34 個(예: 나와 일본인, 나와 대만인), 직업이 28 個(예: 나와 농민, 나와 대학교수), 학연이 20 개(예: 나와 고등학교 동기동창, 나와 대학교 동기동창), 지연이 12 個(예: 나와 같은 도출신인), 혈연이 17 개(예: 나와 어머니), 종교가 12 개(예: 나와 종교관이 상당히 같은 사람) 및 연령이 8 개(나와 같은 나이의 사람)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총 단위관계 기술어들의 수는 131 항목이었다(단위관계 기술어는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수집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위관계 測定尺度의 선정은 매우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完全한 단위관계 척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그 可能性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단위관계 측정 척도의 선정은 경험적 연구를 기초로 하기 보다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였다. 즉, 앞의 서론에서 시사된 單位關係 知覺要因들에서 단위관계 측정에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척도를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선정하였다.

類似性 要因에서 “비슷하다 — 다르다”의 척도가 추출되었고, 近接性 要因에서 “가깝다 — 멀다”의 척도가 추출되었고, 因果性 要因에서 “관계가 있다 — 관계가 없다” 척도가 추출되었고, 共同運命 要因에서 “같은 운명이다 — 다른 운명이다” 척도가 추출되었고, 好感 要因에서 “좋아한다 — 싫어한다” 척도가 추출되었고, 過去經驗 要因에서 “협조한다 — 방해한다” 척도가 추출되었다. 其他의 많은 尺度가 作成될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의 目的을 위해서 6個만이 선정되었다.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질문지에서는 먼저 단위관계 기술어가 제시되고, 그 아래에 그 단위관계의 강도를 평정하는 6개의 척도가 제시되었다. 각 척도는 -3에서 +3에 이르는 7點 尺度로 만들었다.

질문지들은 정규 수업시간을 빌려 실시되었으며 응답 소요시간은 약 40 분이었다.

資料의 處理를 위해서 단위관계들에 대한 6개 척도 각각에 대한 平均値와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6개 척도에 대한 전체 평정치들의 평균 평정치를 계산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7점 척도는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1점에서 7점에 이르는 척도로 바꾸어 처리되었다. 6개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항목에 대한 총점과 각 척도의 상관관을 내어서 상관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結 果 및 論 議

피험자들의 국적, 직업,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및 연령의 7개 영역들에 있는 총 131개의 단위관계들에 대한 단위관계 척도별 평

정치와 표준편차, 척도 종합평균 및 영역별 순위가 표 1, 2, 3, 4, 5, 6 및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의 국적관계의 영역에서는 한국인(1위)과 대만인(2위), 독일인(3위), 이스라엘인(4위)에 대해서 단위관계의 강도가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북한 공산당간부(34위)와 공산월맹인(33위) 및 일본인(32위)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표 2의 직업관계의 영역에서는 농민(1위), 대학교수(2위) 및 회사원(3위)에 대해서 단위관계의 강도가 매우 높은 순위를 나타냈고, 재벌 2세(28위), 식모(27위) 및 광부(26위)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표 3의 혈연관계에서는 어머니(1위), 형제자매(2위), 아버지(3위)에 대해서 단위관계 강도가 매우 높은 순위를 나타냈고, 집안간에 사이에 나뉘었던 성씨의 사람(17위)과 얼굴을 모르는 같은 성의 사람(16위)에 대한 순위가 가장 낮았다.

표 4의 지연관계에서는 같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1위), 같은 집을 사용하는 사람(2위) 및 같은 군이나 시 출신의 사람이 단위관계 강도가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매우 경쟁적 관계에 있는 도출신의 사람(12위)이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표 5의 학연관계에서는 고등학교 동기동창(1위),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동문(2위)이 높은 순위를 나타냈고, 출신대학이 다른 사람(20위)과 출신 국민학교가 다른 사람(19위)이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표 6의 宗教關係에서는 종교관이 상당히 같은 사람(1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종교관이 매우 다른 사람(12위)의 순위가 가장 낮았다.

표 7의 연령관계에서는 같은 나이의 사람(1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나이 차이가 30세 정도인 사람(8위)의 순위가 가장 낮았다.

전체의 131개 단위관계 기술어들에 대한 6개 단위관계 점수의 평균치들의 빈도분포를 보면 도 1과 같다. 도 1에서와 같이 “방해한다—협조한다” “관계가 없다—관계가 있다” “싫어한다—좋아한다” 척도에서는 —쪽 보다는 +쪽으로 평정치들이 더 많은 분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운명이다—같은 운명이다” “다르다—비슷하다” 및 “멀다—가깝다”의 척도는 비교적 대칭적 분

표 1. 국제관계에서의 단위관계 기술어의 단위관계 척도별 평균지와 표준편차

단위관계 단위척도		한국 인	대만 인	북일 인	이스라엘 인	북한 인	덴마크 인	이태리 인	프랑스 인	인도 인	미국 인	홍콩 인	캐나다 인	영국 인	필리핀 인	인도네시아 인	싱가폴 인	팔레스타인
형조한다	평균	6.43 (1)	5.19 (2)	5.03 (4)	5.03 (3)	3.59 (29)	4.97 (5)	4.76 (8)	4.89 (6)	4.49 (17)	4.76 (9)	4.27 (21)	4.68 (10)	4.78 (7)	4.51 (13)	4.59 (12)	4.57 (15)	3.95 (27)
	SD	1.14	1.12	.95	1.01	2.04	.93	.80	.90	.90	1.67	1.08	.84	.92	.82	.78	.96	1.17
같은 문명 이다 - 다른 문명 이다	평균	6.65 (1)	5.59 (2)	4.95 (5)	5.16 (4)	5.16 (3)	4.30 (13)	4.54 (8)	4.22 (15)	4.62 (7)	3.86 (26)	4.43 (10)	4.32 (12)	4.14 (17)	4.30 (14)	4.70 (6)	4.49 (9)	4.41 (11)
	SD	1.08	1.36	1.38	1.37	1.95	1.60	1.20	1.38	1.17	1.70	1.39	1.10	1.40	1.36	1.43	1.18	1.43
비슷하다	평균	6.73 (1)	5.59 (2)	4.68 (5)	4.86 (4)	5.14 (3)	4.43 (10)	4.49 (9)	3.89 (19)	4.51 (8)	3.35 (28)	4.57 (7)	3.69 (22)	3.78 (25)	4.38 (11)	3.89 (18)	4.19 (14)	4.35 (12)
	SD	0.55	1.05	1.40	1.41	1.83	1.29	1.29	1.45	.99	1.61	1.39	1.28	1.31	1.35	1.50	1.20	1.05
판계가 있다 - 판계가 없다	평균	6.88 (1)	5.49 (3)	4.59 (5)	4.81 (7)	5.62 (2)	4.73 (10)	4.73 (11)	4.78 (8)	4.70 (13)	4.41 (5)	4.41 (16)	4.70 (12)	4.32 (17)	4.27 (19)	4.57 (14)	4.30 (18)	4.19 (22)
	SD	0.35	1.25	1.36	1.29	1.89	1.15	1.15	1.43	1.25	1.28	1.35	1.19	1.35	1.50	1.64	1.34	1.26
좋아한다	평균	6.11 (1)	5.27 (4)	5.62 (2)	4.81 (8)	4.19 (17)	5.16 (5)	5.23 (6)	5.32 (3)	4.14 (20)	4.27 (14)	4.14 (19)	4.78 (9)	4.95 (7)	4.57 (11)	4.49 (12)	4.22 (16)	4.03 (23)
	SD	1.19	1.28	1.10	1.54	1.84	1.09	1.29	.92	.68	1.55	1.17	.92	1.07	.99	.95	1.08	1.14
가깝다	평균	6.73 (1)	5.59 (2)	4.73 (5)	4.86 (4)	4.62 (7)	4.59 (8)	4.41 (11)	4.49 (9)	4.41 (10)	4.80 (3)	4.65 (6)	4.19 (15)	4.35 (12)	4.24 (13)	3.81 (4)	4.16 (16)	3.54 (28)
	SD	.50	1.34	1.32	1.16	2.00	1.28	1.08	1.33	1.00	1.37	1.19	1.39	1.19	1.23	1.45	1.18	1.17
전체	평균	6.59 (1)	5.45 (2)	4.99 (3)	4.92 (4)	4.72 (5)	4.69 (6)	4.65 (7)	4.59 (8)	4.47 (9)	4.42 (10)	4.40 (11)	4.39 (12)	4.38 (13)	4.37 (14)	4.34 (15)	4.31 (16)	4.27 (17)
	SD	.50	1.34	1.32	1.16	2.00	1.28	1.08	1.33	1.00	1.37	1.19	1.39	1.19	1.23	1.45	1.18	1.17

(표 1 계속)

단위관계		브라질인	사우다드아라비아인	터어키인	아르헨틴인	만주인	타니인	몽고마인	버어마인	이라크인	미국흑인	아프리카흑인	이란인	중공인	소련인	일본인	공산월맹인	북한공산당원
단위척도	평균	4.62 (11)	4.57 (14)	4.35 (18)	4.54 (16)	4.03 (25)	4.32 (20)	4.00 (26)	4.33 (9)	4.27 (23)	4.19 (24)	4.27 (22)	3.95 (28)	3.38 (30)	3.14 (31)	2.81 (32)	2.81 (33)	1.76 (34)
	SD	.79	1.07	.75	.68	1.14	.89	1.01	.72	1.15	1.06	1.10	1.23	1.39	1.39	1.54	1.35	1.04
같은문명이다 - 다른문명이다	평균	3.81 (27)	3.92 (22)	4.03 (16)	3.95 (19)	4.11 (10)	3.92 (23)	3.92 (21)	3.95 (20)	3.57 (29)	3.70 (28)	3.92 (24)	3.89 (25)	3.30 (30)	3.03 (32)	2.92 (33)	3.03 (31)	2.11 (34)
	SD	1.29	1.51	1.29	1.65	2.10	1.45	1.58	1.32	1.59	1.74	1.77	1.47	1.76	1.53	1.86	1.77	1.60
비슷하다 - 다르다	평균	3.70 (21)	3.65 (23)	4.05 (15)	3.62 (24)	4.22 (13)	4.00 (14)	4.57 (6)	4.00 (16)	3.57 (26)	3.43 (27)	3.16 (30)	3.35 (29)	3.57 (25)	2.73 (32)	2.97 (31)	2.59 (33)	1.95 (34)
	SD	1.58	1.37	1.10	1.40	1.90	1.25	1.34	1.25	1.09	1.47	1.39	1.19	1.51	1.28	1.82	1.67	1.62
관계가 없다	평균	4.76 (9)	4.84 (6)	4.22 (21)	4.00 (27)	4.19 (24)	4.19 (23)	4.24 (20)	3.92 (29)	4.54 (15)	3.95 (28)	3.86 (31)	4.19 (25)	4.05 (26)	3.62 (32)	3.92 (32)	3.27 (33)	2.14 (34)
	SD	1.06	1.78	1.42	1.50	1.56	1.35	1.75	1.38	1.51	1.53	1.67	1.48	1.65	1.89	2.09	1.84	1.81
좋아한다 - 싫어한다	평균	4.46 (13)	4.19 (18)	4.27 (15)	4.57 (10)	4.03 (21)	4.03 (22)	3.62 (26)	3.92 (25)	3.54 (2)	3.95 (24)	3.43 (29)	3.49 (28)	3.38 (33)	2.86 (31)	1.92 (33)	2.59 (32)	1.73 (34)
	SD	1.10	1.15	.72	.94	1.12	1.06	1.24	.71	1.05	1.34	1.52	1.18	1.43	1.41	1.34	1.27	1.22
기쁘다 - 슬프다	평균	4.06 (17)	4.17 (14)	3.95 (20)	3.95 (11)	4.00 (18)	3.89 (21)	3.84 (23)	3.81 (24)	3.49 (29)	3.57 (28)	3.89 (22)	3.62 (26)	3.24 (30)	2.57 (32)	3.14 (31)	2.57 (33)	1.78 (34)
	SD	1.17	1.39	1.14	1.34	1.32	1.11	1.56	1.27	1.41	1.45	1.49	1.46	1.57	1.19	1.91	1.23	1.36
전체		4.23 (18)	4.22 (19)	4.14 (20)	4.10 (21)	4.09 (22)	4.05 (23)	4.03 (24)	3.98 (25)	3.82 (26)	3.79 (27)	3.75 (28)	3.74 (29)	3.48 (30)	2.99 (31)	2.94 (32)	2.81 (33)	1.92 (34)

이 하의 표에서 () 안의 수치는 점수의 순위인. 수치가 차를수록 단위관계 지각정수는 높은것임.

N=37

표 2. 직업관계에서의 단위관계 기술어의 단위관계 척도별 평균치와 표준편차

단위관계 단위척도	단위관계	농민	대 학 교 수	회 사원	고 급 공무원	교 장	제장급 공무원	장관	상점 주인	하 급 공무원	군 인 (사병)	국 회 의원	관 · 경 사	운전수	노무자
		$\bar{x}$	$\bar{x}$	$\bar{x}$	$\bar{x}$	$\bar{x}$	$\bar{x}$	$\bar{x}$	$\bar{x}$	$\bar{x}$	$\bar{x}$	$\bar{x}$	$\bar{x}$	$\bar{x}$	$\bar{x}$
척조한다		6.20 (1)	5.51 (2)	5.08 (6)	4.77 (16)	5.22 (3)	4.80 (15)	4.48 (21)	4.85 (14)	5.22 (3)	5.05 (7)	4.94 (12)	4.91 (13)	5.17 (5)	4.94 (11)
방해한다		.98	1.15	1.08	1.50	1.17	1.14	1.05	1.13	1.12	1.48	1.36	1.11	1.24	1.40
같은운령 이다 -		5.05 (1)	4.82 (2)	4.57 (5)	4.57 (4)	3.91 (9)	4.57 (6)	4.68 (3)	3.68 (12)	3.82 (10)	4.34 (7)	4.14 (8)	3.48 (15)	3.43 (14)	3.80 (11)
다른운령 이다		1.82	1.31	1.52	1.50	1.59	1.35	1.67	1.80	1.58	2.02	1.98	1.94	1.59	2.10
비슷하다		4.80 (2)	5.02 (7)	4.62 (4)	4.31 (5)	4.22 (6)	4.65 (3)	4.08 (8)	3.45 (15)	3.74 (9)	3.71 (10)	4.11 (7)	3.65 (11)	3.81 (1)	3.42 (16)
- 다르다		1.67	1.24	1.70	1.83	1.34	1.48	1.01	1.57	1.49	2.13	1.81	1.94	1.42	1.83
관계가 있다 -		5.57 (2)	5.60 (1)	5.05 (3)	4.82 (5)	4.60 (7)	4.28 (10)	4.28 (9)	4.88 (4)	4.25 (11)	4.42 (8)	3.97 (15)	3.97 (14)	4.22 (12)	3.94 (16)
관계가 없다		1.52	1.22	1.40	1.08	1.59	1.65	1.48	1.62	1.50	2.11	1.99	1.88	1.91	1.56
좋아한다		5.14 (2)	5.62 (1)	4.54 (6)	4.65 (4)	4.94 (2)	4.34 (11)	4.48 (8)	4.37 (9)	4.28 (14)	4.17 (19)	4.34 (13)	4.60 (5)	4.22 (15)	4.34 (10)
싫어한다		1.45	1.30	1.35	1.53	1.32	1.25	1.41	1.34	1.60	2.04	1.57	1.27	1.71	1.52
가깝다		5.28 (1)	5.14 (2)	5.00 (3)	4.25 (8)	4.32 (6)	4.40 (5)	4.02 (11)	4.80 (4)	4.37 (7)	3.82 (14)	3.68 (18)	4.11 (9)	4.05 (10)	3.97 (12)
- 멀다		1.72	1.43	1.53	1.71	1.76	1.50	1.68	1.94	1.71	2.17	1.39	1.52	1.66	1.45
전 체		5.34 (1)	5.29 (2)	4.81 (3)	4.56 (4)	4.54 (5)	4.50 (6)	4.34 (7)	4.34 (8)	4.28 (9)	4.25 (10)	4.20 (11)	4.12 (12)	4.08 (13)	4.07 (14)

(표 2 계속)

단위관제 단위최수		의사	공원	비서	수위	고급 장교	복사	대기업 사장	청소부	경찰관	외판원	어부	광부	식모	재벌 2세
형조한다	$\bar{x}$	4.97 (9)	4.48 (19)	4.48 (20)	5.02 (8)	4.31 (25)	4.31 (23)	4.11 (26)	4.91 (18)	4.34 (22)	4.05 (27)	4.57 (17)	4.51 (18)	4.31 (24)	3.20 (28)
	SD	1.41	1.32	1.32	1.51	1.21	1.58	1.52	1.67	1.54	1.25	1.23	1.07	1.28	1.30
방배한다	$\bar{x}$	3.31 (17)	3.25 (19)	3.48 (13)	2.88 (22)	3.25 (18)	3.08 (21)	3.34 (16)	2.45 (26)	3.20 (20)	2.85 (23)	2.80 (24)	2.57 (25)	2.40 (26)	2.42 (27)
	SD	1.76	1.48	1.91	1.57	1.93	1.90	1.84	1.66	1.60	1.31	1.79	1.71	1.33	1.73
비웃한다	$\bar{x}$	3.20 (18)	3.48 (14)	3.14 (19)	2.71 (23)	3.51 (13)	3.14 (20)	3.54 (12)	2.68 (24)	2.88 (22)	3.00 (21)	2.62 (25)	2.31 (28)	2.34 (27)	2.37 (26)
	SD	1.94	1.33	1.92	1.47	1.84	1.88	1.83	1.57	1.32	1.26	1.49	1.54	1.25	1.50
판계가 있다 - 판계가 없다	$\bar{x}$	4.77 (6)	3.71 (19)	3.51 (23)	4.00 (13)	3.42 (25)	3.80 (18)	3.80 (17)	3.60 (22)	3.62 (21)	3.48 (24)	2.97 (26)	2.68 (20)	2.48 (17)	2.48 (28)
	SD	1.70	1.57	1.88	1.85	1.92	2.01	2.01	1.94	1.85	1.49	1.77	1.76	1.62	1.53
좋아한다	$\bar{x}$	4.51 (7)	3.94 (3)	4.11 (20)	4.00 (21)	4.26 (7)	4.22 (16)	3.71 (25)	4.17 (18)	3.31 (28)	3.45 (27)	3.97 (22)	4.34 (12)	3.94 (24)	3.48 (26)
	SD	1.93	1.52	1.63	1.35	1.60	1.75	1.96	1.49	1.52	1.36	1.47	1.50	1.13	1.67
가깝다	$\bar{x}$	3.49 (22)	3.91 (13)	3.71 (15)	3.65 (19)	3.42 (17)	3.40 (24)	3.11 (20)	3.69 (16)	3.48 (21)	3.54 (20)	3.02 (25)	2.54 (28)	2.97 (27)	2.68 (26)
	SD	1.99	1.69	1.84	1.64	1.83	2.03	1.89	1.76	1.40	1.11	1.54	1.58	1.60	1.71
- 멀다	$\bar{x}$	4.04 (15)	3.80 (16)	3.74 (17)	3.71 (18)	3.69 (79)	3.66 (20)	3.61 (21)	3.59 (22)	3.47 (23)	3.40 (24)	3.32 (25)	3.16 (28)	3.07 (27)	2.77 (28)
	SD														

표 3. 혈연관계에서의 단위관계 기술어의 단위관계 척도별 평균치와 표준편차

단위 척도	단위관계		어머 니	형제 자매	아버 지	4촌 형제 자매	고모	할머 니	삼촌	먼조 상	할아 버지	정안 아저 씨	친척관 계 없 는 사람	생이 다른 사람	6촌 형제 자매	5촌아 저씨와 주머니 친척	영공 아는 친척	영공 아는 친척 같은 사람	영공 아는 친척 같은 사람	친안간에 사이가 나 쁜 사람
	평균	SD	6.64 (1)	6.02 (3)	6.23 (2)	5.47 (7)	5.58 (5)	5.76 (4)	5.50 (6)	4.97 (9)	5.24 (8)	4.97 (10)	4.76 (13)	4.67 (14)	4.79 (12)	4.62 (15)	4.82 (11)	4.41 (16)	4.41 (16)	3.73 (17)
양매한다			.86	1.17	.92	1.15	1.41	1.03	1.24	1.41	1.14	1.10	.87	1.02	1.13	.99	1.03	1.04	1.04	1.16
같은 이름 이다			5.05 (2)	5.35 (1)	4.79 (3)	4.32 (4)	3.76 (8)	3.71 (10)	3.61 (12)	3.76 (11)	3.76 (6)	3.50 (16)	4.26 (5)	3.73 (9)	3.53 (14)	3.53 (13)	3.52 (15)	3.62 (11)	3.62 (11)	2.85 (17)
다른 이름 이다			1.94	2.02	2.24	1.93	1.75	1.96	1.77	1.98	1.83	1.42	1.42	1.37	1.52	1.29	1.44	1.16	1.16	1.20
비슷하다			5.67 (1)	5.58 (2)	5.02 (3)	4.91 (4)	4.32 (6)	4.26 (8)	4.26 (7)	4.64 (5)	4.21 (9)	4.14 (11)	3.97 (12)	4.11 (10)	3.76 (16)	3.79 (15)	3.85 (14)	3.88 (13)	3.88 (13)	3.11 (17)
다르다			1.57	1.69	2.07	1.51	1.38	1.78	1.72	1.59	1.67	1.44	1.36	1.16	1.62	1.34	1.34	2.21	2.21	1.25
관계가 있다			6.55 (1)	6.11 (2)	6.05 (3)	5.61 (5)	5.55 (6)	5.76 (4)	5.56 (8)	5.41 (8)	4.91 (9)	4.82 (10)	4.55 (12)	4.61 (11)	4.47 (14)	4.41 (15)	4.50 (13)	3.76 (17)	3.76 (17)	3.94 (16)
관계가 없다			.77	1.32	1.51	1.30	1.45	1.26	1.31	1.27	1.68	1.14	1.36	1.20	1.24	1.20	1.22	1.26	1.26	1.40
좋아한다			6.32 (1)	5.94 (2)	5.79 (3)	5.41 (6)	5.47 (5)	5.50 (4)	5.35 (7)	5.00 (9)	5.15 (8)	4.82 (10)	4.64 (13)	4.70 (11)	4.65 (12)	4.47 (14)	4.35 (5)	4.29 (16)	4.29 (16)	3.29 (17)
싫어한다			2.70	1.12	1.36	1.22	1.20	1.42	1.29	1.33	1.25	1.19	1.17	.85	1.01	.92	1.10	.77	.77	1.09
가깝다			6.32 (1)	6.02 (2)	5.91 (3)	5.11 (7)	5.47 (4)	5.15 (6)	5.23 (5)	4.64 (10)	5.08 (8)	4.73 (9)	4.32 (13)	4.44 (11)	4.35 (12)	4.26 (14)	3.91 (16)	4.00 (15)	4.00 (15)	3.11 (17)
- 멀다			2.73	1.22	1.41	1.33	1.17	1.91	1.41	1.50	1.63	.50	1.14	1.15	1.29	1.31	1.32	1.09	1.09	1.15
전 체			5.89 (1)	5.67 (2)	5.47 (3)	4.99 (4)	4.88 (5)	4.88 (6)	4.77 (7)	4.60 (8)	4.57 (9)	4.37 (10)	4.29 (11)	4.25 (12)	4.13 (13)	4.06 (14)	4.04 (15)	3.88 (16)	3.88 (16)	3.24 (17)

* N = 35

표 5. 학연관계에서의 단위관계 기술어의 단위관계 척도별 평균치와 표준편차

단위관계		고등학교	국민학교 외중학교 고등학교 동	고등학교 대학교 동	고등학교 대학교 동	대 학교 동기동창	중·고등 학교 동문	국민학교 동기동창	고등학교 선 후 배	국민학교 외중학교 동 문	중 학교 동기동창	대 학교 선 후 배
단위척도		고등학교 동기동창	국민학교 외중학교 고등학교 동	고등학교 대학교 동	고등학교 대학교 동	대 학교 동기동창	중·고등 학교 동문	국민학교 동기동창	고등학교 선 후 배	국민학교 외중학교 동 문	중 학교 동기동창	대 학교 선 후 배
		고등학교 동기동창	국민학교 외중학교 고등학교 동	고등학교 대학교 동	고등학교 대학교 동	대 학교 동기동창	중·고등 학교 동문	국민학교 동기동창	고등학교 선 후 배	국민학교 외중학교 동 문	중 학교 동기동창	대 학교 선 후 배
협조한다 - 방해한다	$\bar{x}$	6.08 (1)	5.63 (2)	5.53 (5)	5.55 (4)	5.55 (4)	5.55 (3)	5.29 (6)	5.21 (8)	5.26 (7)	5.00 (10)	5.05 (9)
	SD	.93	.97	1.00	.95	.95	.95	1.40	.97	.93	.92	.81
같은문명이다 - 다른문명이다	$\bar{x}$	5.16 (1)	4.82 (3)	4.84 (2)	4.58 (6)	4.58 (6)	4.66 (5)	4.68 (4)	4.47 (9)	4.29 (12)	4.47 (8)	4.47 (10)
	SD	1.67	1.59	1.52	1.73	1.73	1.50	1.59	1.60	1.41	1.46	1.30
비슷하다 - 다르다	$\bar{x}$	5.82 (1)	4.97 (5)	5.16 (3)	5.29 (2)	5.29 (2)	5.11 (4)	4.53 (10)	4.71 (6)	4.47 (13)	4.55 (9)	4.68 (8)
	SD	1.05	1.44	1.15	1.32	1.32	1.07	1.81	1.36	1.13	1.36	1.23
관계가 있다 - 관계가 없다	$\bar{x}$	6.00 (1)	5.45 (3)	5.53 (2)	5.42 (4)	5.42 (4)	5.34 (5)	5.18 (7)	5.13 (9)	5.05 (11)	5.16 (8)	5.08 (10)
	SD	.79	1.20	.94	1.02	1.02	1.12	1.35	1.04	1.20	.95	.81
좋아한다 - 싫어한다	$\bar{x}$	5.97 (1)	5.53 (3)	5.42 (6)	5.37 (7)	5.37 (7)	5.42 (5)	5.74 (2)	5.29 (8)	5.42 (4)	5.13 (9)	4.97 (10)
	SD	.81	.97	.89	.95	.95	.89	1.08	.85	.86	.93	.89
가깝다 - 멀다	$\bar{x}$	6.03 (1)	5.68 (2)	5.55 (3)	5.29 (5)	5.29 (5)	5.39 (4)	5.00 (8)	5.03 (7)	5.16 (6)	4.87 (11)	4.89 (10)
	SD	.99	1.03	1.03	1.21	1.21	.99	1.49	1.07	1.06	1.49	1.04
전 체		5.84 (1)	5.35 (2)	5.33 (3)	5.25 (4)	5.25 (4)	5.24 (5)	5.07 (6)	4.97 (7)	4.94 (8)	4.86 (9)	4.85 (10)

* N = 37

(표 5 계속)

단위관계		경쟁적 관 제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 인	경쟁적 관 제에 있는 국민학교 출신 인	경쟁적 관 제에 있는 대학교 출신 인	국민학교 선 후 배	경쟁적 관 제에 있는 중학교 출신 인	출신 중학 교가 다른 사람	출신 고등 학교가 다른 사람	중 학 교 선 후 배	출신 국민 학교가 다른 사람	출신 대학 교가 다른 사람
단위척도	—	$\bar{x}$	4.63 (18)	4.63 (18)	4.87 (11)	4.61 (79)	4.71 (12)	4.68 (15)	4.71 (13)	4.71 (14)	4.53 (20)
	방해한다	SD	1.10	1.12	1.05	.96	.76	.69	.89	.73	1.00
같은운명이다	—	$\bar{x}$	4.53 (7)	4.24 (15)	3.95 (18)	4.26 (14)	4.11 (16)	4.26 (13)	3.71 (20)	3.97 (17)	3.82 (19)
	다른운명이다	SD	1.59	1.61	1.58	1.32	1.24	1.22	1.38	1.36	1.28
비슷하다 — 다르다	—	$\bar{x}$	4.68 (7)	4.53 (11)	4.13 (17)	4.39 (14)	4.34 (15)	4.34 (16)	4.08 (18)	4.00 (20)	4.08 (19)
	다르다	SD	1.02	1.24	1.57	1.26	.99	.41	1.35	1.10	1.22
관계가있다 — 관계가없다	—	$\bar{x}$	5.27 (6)	4.74 (13)	4.58 (16)	4.63 (15)	4.55 (18)	4.66 (14)	4.55 (17)	4.53 (19)	4.39 (20)
	관계가없다	SD	1.14	1.32	1.35	1.39	.87	.89	1.24	1.10	1.28
좋아한다 — 싫어한다	—	$\bar{x}$	4.76 (12)	4.50 (19)	4.89 (11)	4.32 (13)	4.61 (14)	4.50 (17)	4.76 (13)	4.50 (18)	4.24 (15)
	싫어한다	SD	1.05	1.10	.99	1.06	.68	.75	.80	.68	.86
가깝다 — 멀다	—	$\bar{x}$	4.92 (9)	4.45 (15)	4.39 (16)	4.53 (13)	4.37 (17)	4.16 (18)	4.50 (14)	4.13 (19)	3.68 (20)
	멀다	SD	1.16	1.20	1.38	1.05	1.03	1.06	1.17	1.06	1.23
전 체			4.80 (11)	4.51 (12)	4.46 (14)	4.45 (15)	1.44 (16)	4.43 (17)	4.38 (18)	4.30 (19)	4.12 (20)

표 6 . 종교관계에서의 단위관계 기술어의 단위관계 척도별 평균치와 표준편차

단위관계		종교관이 상당히 같 은 사람	종교관 이해 같 은 사람	같은종 교의 사 람	나와같은 종교의 같 은종파의 사람	종교관이 약간같은 사람	종교관이 약간다른 사람	종교관이 배우같은 사람	종교관이 이상남 이다른 사람	같은종교 이지만 파가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른사 람	종교관 이 매우 다른사 람	종교관 이 매우 다른사 람
단위척도	형조한다 -	5.41 (2)	5.03 (5)	5.46 (1)	5.35 (3)	5.24 (4)	5.00 (6)	4.92 (7)	4.54 (9)	4.86 (8)	4.27 (11)	4.30 (10)	4.08 (12)
	방해한다	1.19	.98	.97	.97	.93	.81	1.22	.95	.99	.89	.75	.82
같은운명 이다 -	같은운명 이다 -	5.14 (1)	4.81 (3)	4.92 (2)	4.43 (9)	4.68 (8)	4.81 (3)	4.76 (5)	4.51 (8)	4.57 (7)	4.14 (10)	4.00 (12)	4.05 (11)
	다른운명 이다	1.02	1.09	1.05	1.53	1.32	1.12	1.54	.99	1.10	1.24	1.23	1.17
비슷하다 - 다르다	비슷하다	5.41 (1)	4.89 (6)	5.11 (3)	5.27 (2)	5.00 (4)	4.95 (5)	4.78 (7)	4.43 (9)	4.65 (8)	4.00 (11)	4.24 (10)	3.95 (12)
	- 다르다	.72	1.02	1.15	1.09	1.27	.99	1.37	.90	1.11	1.19	.84	1.08
관계가있다 - 관계가없다	관계가있다	5.54 (1)	4.95 (7)	5.19 (2)	5.16 (3)	5.11 (5)	5.16 (3)	5.05 (6)	4.73 (9)	4.84 (8)	4.62 (10)	4.27 (12)	4.38 (11)
	관계가없다	.92	1.17	1.16	1.32	1.17	.87	1.24	1.06	1.10	1.03	1.16	1.10
좋아한다 - 싫어한다	좋아한다 -	5.46 (1)	4.97 (6)	5.27 (2)	5.19 (3)	5.03 (4)	4.97 (6)	5.03 (4)	4.32 (9)	4.76 (8)	4.32 (9)	4.14 (11)	4.14 (11)
	싫어한다	.92	1.04	1.03	1.01	.90	.68	1.32	.92	.90	.83	.68	.82
가깝다 - 멀다	가깝다 -	5.22 (4)	5.05 (5)	5.30 (2)	5.54 (1)	5.27 (3)	5.05 (5)	4.92 (7)	4.51 (9)	4.86 (8)	4.27 (10)	4.05 (12)	4.14 (11)
	멀다	1.08	1.03	.94	1.03	.92	.89	1.19	1.02	.99	1.00	.97	.92
전		5.36 (1)	5.23 (2)	5.20 (3)	5.15 (4)	5.05 (5)	4.99 (6)	4.90 (7)	4.76 (8)	4.75 (9)	4.27 (10)	4.16 (11)	4.12 (12)

* N = 38

표 7. 연령관계에서의 단위관계 척도별 평균치와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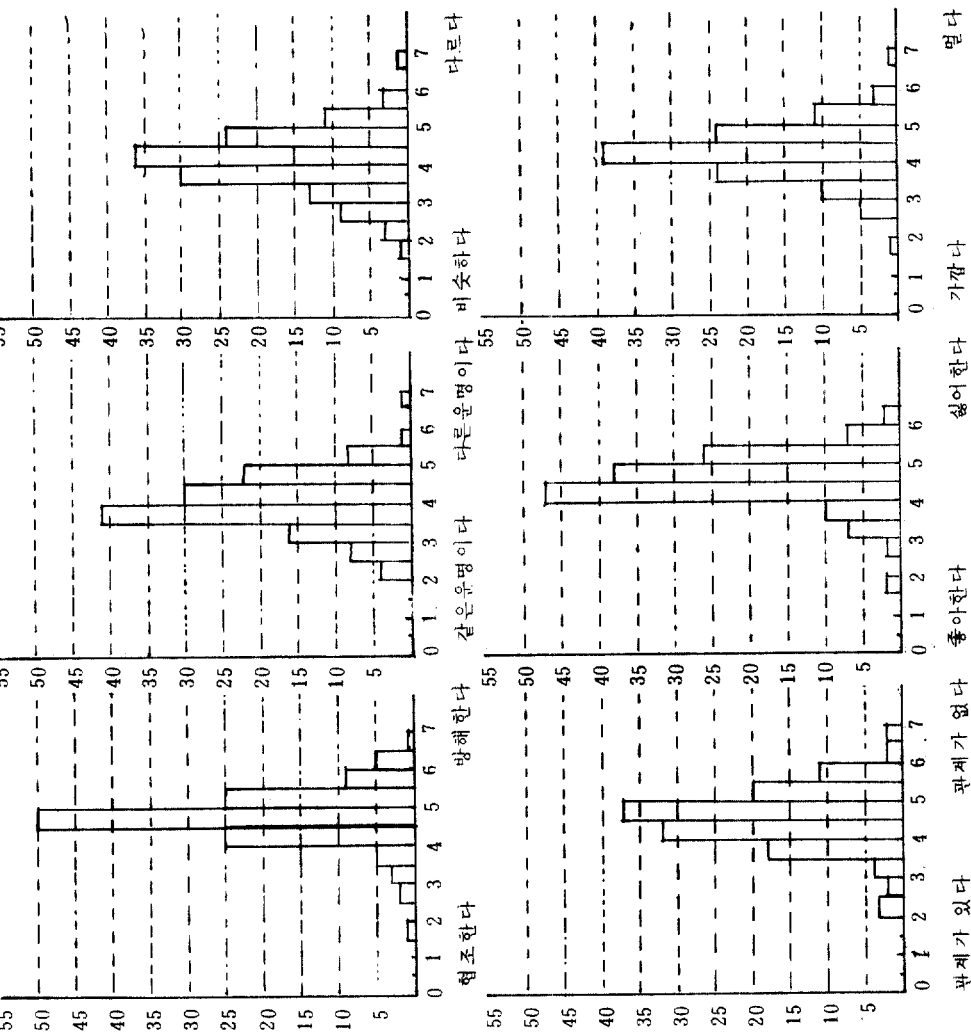
단위척도	단위관계		같은 나이 의 사람	나이가 1살정도 인 사람	나이가 2 ~3세정도 인 사람	나이가 5 ~6세정도 인 사람	나이가 10 세정도 인 사람	나이가 20 세정도 인 사람	나이가 40 세정도 인 사람	나이가 30 세정도 인 사람
	$\bar{x}$	SD								
협조한다 - 방해한다	5.87 (1)	.85		5.47 (2)	5.13 (3)	4.97 (4)	4.97 (4)	4.82 (6)	4.74 (7)	4.71 (8)
				.96	1.09	1.15	1.10	1.28	1.15	1.10
같은운명이다 - 다른운명이다	5.03 (1)	1.37		4.37 (2)	4.03 (3)	3.68 (4)	3.42 (5)	3.18 (6)	2.87 (7)	2.58 (8)
				1.47	1.75	1.46	1.39	1.22	1.56	1.18
비슷하다 - 다르다	5.05 (1)	1.40		4.77 (2)	4.34 (3)	3.87 (4)	3.63 (5)	3.45 (6)	3.05 (7)	2.82 (8)
				1.45	1.37	1.40	1.29	1.28	1.56	1.24
관계가있다 - 관계가없다	5.53 (1)	1.19		5.26 (2)	4.82 (3)	4.58 (4)	4.13 (5)	4.13 (5)	3.15 (8)	4.11 (7)
				1.26	1.20	1.01	1.18	1.97	2.18	1.31
좋아한다 - 싫어한다	5.50 (1)	1.10		5.24 (2)	5.08 (4)	5.11 (3)	4.76 (6)	4.82 (5)	4.50 (8)	4.61 (7)
				1.05	.90	1.02	1.10	1.17	1.31	.96
가깝다 - 멀다	5.37 (1)	1.26		5.16 (2)	4.79 (3)	4.58 (4)	3.95 (7)	3.89 (8)	4.32 (5)	4.18 (6)
				1.00	1.24	1.35	1.14	1.27	1.44	1.25
전		5.39 (1)		5.04 (2)	4.69 (3)	4.46 (4)	4.14 (5)	4.09 (6)	3.94 (7)	3.63 (8)

* N = 38

표 8 . 각 척도와 단위관계 총점간의 단위관계 척도별 상관계수와 평균상관계수

단위관계 단위척도	북한공 산당간 부	이스 라엘 인	독일 인	북한 인	팔레 스타 인	아르 제틴 인	이라 크 인	미국 흑인	공산 혁명 인	버어 마인	중공 인	소련 인	이태 리인	프랑 스인	몽고 인	r
형조한다 - 방해한다	.77	.75	.72	.58	.74	.57	.68	.74	.41	.36	.71	.90	.46	.70	.53	.67
같은운명이다 - 다른운명이다	.88	.66	.73	.81	.70	.86	.77	.84	.84	.88	.68	.76	.68	.69	.66	.77
비슷하다 - 다르다	.90	.82	.71	.71	.84	.87	.77	.84	.75	.89	.84	.47	.72	.57	.69	.78
관계가있다 - 관계가없다	.84	.73	.75	.68	.66	.91	.70	.84	.71	.87	.75	.61	.65	.84	.82	.78
좋아한다 - 싫어한다	.87	.78	.72	.76	.68	.49	.72	.83	.85	.37	.93	.77	.27	.61	.69	.71
가깝다 - 멀다	.94	.73	.84	.79	.74	.82	.71	.89	.82	.80	.79	.86	.71	.82	.78	.81

* N = 37



(도 1) 단위 판계 점수의 평균치들의 빈도분포

포를 보였으나 +쪽 평정치의 분포가 더 많은 경향이 약간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단위관계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6개의 척도의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국적영역에 있는 단위관계 기술어들에 대한 평정치를 분석하였다. 34개의 기술어들 중에서 단위관계 강도 총점이 비교적 균등한 거리에 있는 15개 기술어를 선정하였고, 각각의 단위관계에 대한 단위관계 총 평정치와 각 단위관계척도의 평정치 사이의 상관관을 계산하였다. 표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척도 상의 점수와 총점간의 상관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위관계들에 대한 척도별 평균상관을 Z 값을 사용해서 계산한 결과는 표의 마지막 열에 있다. 각 척도상의 점수와 총점간의 상관관계수의 크기는 가깝다 - 멀다 ($r = .81$), 비슷하다 - 다르다 ($r = .78$), 관계가 있다 - 관계가 없다 ($r = .78$), 같은 운명이다 - 다른 운명이다 ($r = .77$), 좋아한다 - 싫어한다 ($r = .71$), 협조한다 - 방해한다 ($r = .67$) 척도들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상관의 크기는 대체로 비슷하였다. 특히 좋아한다 - 싫어한다 척도의 상관이 다른 척도들의 상관보다 높지 않은 점은 주목할만 한 것 같다. 전체적으로 6개 척도 모두가 단위관계 측정을 위한 좋은 척도가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연구 II : 단위관계의 강도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對人關係에서 印象形成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印象形成 結果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여 왔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印象形成의 機制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져 왔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Asch (1946)와 Kelley (1950)의 연구에서는 “따뜻하다”나 “차갑다”, “정중하다”나 “무뚝뚝하다”와 같은 성격특성들이 인상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려 하였고, Anderson (1959, 1965) 이후의 많은 연구들도 성격특성들의 평가치들이 어떻게 통합되는가를 주로 다루어 왔다(趙統鎬, 1982 參照). 지금까지의 印象形成에 관한 연구의 主流는 성격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인상을 형성시키거나 변화시키는가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印象形成에는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성격특성 要因 만이 작

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개인의 신체적 외모(체격, 얼굴생김새, 복장, 신체장애 등)는 인상형성에서 또한 강력한 요인이 될 것을 가정할 수 있고, 실제로 Fiske(1978)는 신체적 외모의 특징들이 인상형성에서 다른 무계를 차지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요인들 이외에 印象形成에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또다른 요인은 單位關係인 것 같다. 이미 Heider(1958)는 유사성, 상호작용, 근접성, 친숙성, 소유 등의 單位關係 知覺要因들이 감정(Sentiment)이나 好感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상세하게 지적한바 있다. 다시 말하면, 單位關係 知覺要因이 好感, 正的이거나 負的인 評價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성격특성 형용사들도 Jordan의 주장에 따르면 단위지각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보다 직접적인 단위지각 요인과 간접적인 단위지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성격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目的은 單位關係의 特性들도 인상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主目的에 더해서, 본 연구에서는 Asch(1946)와 Kelley(1950)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따뜻하다 — 차갑다, 상냥하다 — 무뚝뚝하다, 강하다 — 약하다(語義細分에서의 能力要因)의 특성들의 인상형성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을 추시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두번째의 부수적인 연구목적은 Asch(1946)의 따뜻하다 — 차갑다 요인과 다른 요인을 비교하려는 것이었다. Asch(1946)는 인상형성에서 따뜻하다 — 차갑다 特性이 중심특성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서 그러한 특성이 왜 중심특성이 되는가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는 달리 印象形成에서 따뜻하다 — 차갑다만이 중심특성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성격특성 형용사들에 대한 호오도 평가치들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따뜻하다 — 차갑다보다 더 正的이거나 負的인 평가치를 받는 특성들도 많다(Anderson, 1968 : 尹鎬允, 1970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中心特性이라는 개념보다도 評價値의 극단성이 인상형성을 더 잘 설명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보다 극단적인 평가치를 갖는 特性이 인상형성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Asch(1946)의 “따뜻하다 — 차갑다” 특성과 이 보다 더 극단적 평가치를 갖는 “인자하다 — 악독하다” 특성의 영향을 비교하여 보았다.

方 法

被驗者 : 全北大學校 건축공학과와 사범대학 학생 40 명이 본 연구의 피험자가 되었다. 40 명의 자료 중 반응 누락자 한·두 명이 제외되어 자료의 피험자수는 38 내지 40 명이 되었다.

材料 및 節次 본 연구에서는 Asch (1946)와 Kelley (1950) 式의 인상형성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인상형성에 영향줄 것으로 가정된 單位關係 特性은 두개의 요인이 사용되었는데, “나의 형제이다”(앞의 表3에서 높은 순위의 단위관계 강도를 보이고 있다)의 正的 單位關係와 그에 대응되는 負的 單位關係라고 간주되는 “나의 방해자이다”의 특성과 나의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다”(앞의 表5에서 높은 순위의 단위관계 강도를 보이고 있다)의 正的 特性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零이나 負的인 특성을 사용하였다.

인물 형용사로는 인물형용사의 평가치를 고려하여(尹鎬允, 1970 참조) “따뜻하다”(4.72)와 “차갑다”(2.00)의 雙, “상냥하다”(4.97)와 “무뚝뚝하다”(2.72)의 雙, “강하다”(4.46)와 “약하다”(1.73)의 雙이 사용되었다. 이에 더해서 따뜻하다 — 차갑다의 特性雙보다 더 평가치가 극단적인 雙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자하다”(5.32)와 “악독하다”(0.18)의 雙을 선정하였다.

이들 특성들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背景 特性들은 Kelley (1950)의 실험에서 사용된 특성인 근면하다, 결단성 있다, 실제적이다 및 비판력이 있다의 4개가 사용되었다. 이들 배경 특성들은 실험에 사용된 질문지마다 그 순서가 무선적으로 바뀌었으며 그 중앙에는 앞에서 선정된 “자극” 特性이 위치하였다.

자극 특성들이 갖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Asch (1946)와 Kelley (1950)가 사용한 척도들 중에서 9個의 尺度를 사용하였다(① 관대하다 — 관대치 못하다, ② 불행하다 — 행복하다, ③ 유우머가 있다 — 유우머가 없다, ④ 비사교적이다 — 사교적이다, ⑤ 인기가 있다 — 인기가 없다, ⑥ 잔인하다 — 인간적이다, ⑦ 이타적이다 — 자기중심적이다, ⑧ 경솔하다 — 진지하다, ⑨ 성공할 것이다 — 실패할 것이다). 각 척도는 1에서 7에 이르는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자료 처리시에는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인상치가 되도록 점수들을 전환시

켰다).

각 피험자는 각각 4개의 배경특성에 들어 있는 총 12개의 특성들에 대해 인상을 평정하였으며, 평정 순서는 질문지 제본에 의해서 무선적으로 되게 만들었다. 실험은 교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結果 및 論議

본 실험에서 사용된 단위관계 특성들과 인물형상사들이 인상 평정에 미친 효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두 쌍의 單位關係 特性들은 하나의 인상평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差異가 有義한 인상변화를 일으켰다. 두 단위특성 쌍 중에서도 첫번째의 나의 형제이다 — 나의 방해자이다 쌍보다도 두번째의 나의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다 —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쌍이 더 평정치 차이가 작았다. 이는 아마 이 쌍의 후자의 특성이 正負 次元에서 中間에 가까운 單位特性인 데에 기인되었을 것이다. 단위관계 특성이 印象形成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지지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特性內의 거리가 또한 인상형성에 대한 영향에서 중요한 요인이 됨을 증명하였다. 한편, 따뜻하다 — 차갑다 쌍과 상냥하다 — 무뚝뚝하다 쌍을 비교하면, 두 쌍이 모두 유의한 인상차이를 일으켰지만, 전자의 쌍이 더 큰 인상차이를 일으켰다 (16.04 대 10.89) 따라서 상냥하다 — 무뚝뚝하다 特性보다는 따뜻하다 — 차갑다 特性이 더 中心特性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강하다 — 약하다 特性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었다.

그러나 따뜻하다 — 차갑다의 特性이 唯一한 중심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10에서는 따뜻하다 — 차갑다 特性이 일으킨 인상차이와 인자하다 — 악독하다 特性이 일으킨 인상차이의 차이가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와 같이 9개 인상차원에서 7개가 따뜻하다 — 차갑다 特性보다 인자하다 — 악독하다 특성이 더 큰 인상차를 일으킴을 보였고, 두 인상차원만은 따뜻하다 — 차갑다 특성의 차이가 더 컸으며, 나머지 두 인상차원에서는 차이가 유의치 않았다. 따라서 인자하다 — 악독하다는 특성은 따뜻하다 — 차갑다보다 더 큰 인상차이를 일으켰고, 더 中心特性이 되는 特性이 된다고 볼 수 있

표 9. 단위관계 특성들과 인물평용사들에 대한 인상평가의 평균치와 차이

특성	인상		① 판대 — 비판대	② 행복 — 불행	③ 유우머있 음-유우 머없음	④ 사교적 — 비사교적	⑤ 인기있음 —인기없 음	⑥ 인간적 — 잔인	⑦ 이타적 — 자기중심 적	⑧ 진지 — 경솔	⑨ 성공 — 실패	총 계
나의 형제 — 나의 방해자	$\bar{x}$		3.48	4.98	3.05	4.38	4.05	5.25	3.08	5.20	4.58	38.05
	$\bar{x}$		2.58	4.16	2.90	4.26	3.08	4.03	2.26	4.47	3.76	31.50
	차이		.90	.82	.15	.12	.97	1.22	.82	.73	.82	6.55
	t		4.84	4.00	2.09	2.33	4.67	15.06	4.53	4.62	4.61	
			**	**	*	*	**	**	**	**	**	
나의 중·고등학교 —나의 편제 없음	$\bar{x}$		3.75	4.63	4.08	4.85	3.90	4.90	3.00	5.13	4.65	38.89
	$\bar{x}$		3.51	4.85	3.28	4.21	3.39	4.62	2.54	5.33	4.23	35.96
	차이		.24	— .22	.80	.64	.51	.28	.46	— .20	.42	2.93
	t		3.50	2.43	4.50	4.29	4.91	2.91	2.88	1.62	4.40	
			**	*	**	**	**	**	**		**	
마뚝하다 — 차갑다	$\bar{x}$		4.97	5.87	4.08	5.41	4.77	5.87	3.87	5.33	4.77	44.94
	$\bar{x}$		2.75	4.00	1.92	2.73	2.47	3.78	2.30	5.18	3.75	28.98
	차이		2.22	1.87	2.16	2.68	2.30	2.09	1.57	.15	1.02	16.06
	t		10.12	6.56	7.94	6.46	7.77	8.11	5.27	2.25	5.37	
			**	**	**	**	**	**	**	*	**	

** P < .01

(표 9 계속)

특성	인상 비판대	① 관대 — 비판대	② 행복 — 불행	③ 유용 — 무용	④ 사교적 — 비사교적	⑤ 인기있음 — 인기없음	⑥ 인간적 — 자인	⑦ 이타적 — 자기중심적	⑧ 진지 — 경솔	⑨ 성공 — 실패	총 계
인자하다 — 악독하다	$\bar{x}$	4.92	5.37	3.66	4.90	4.68	5.68	3.82	5.55	4.97	43.55
	$\bar{x}$	1.54	3.13	2.26	3.41	1.56	2.44	1.44	4.36	3.05	23.19
	차이	3.38	2.24	1.40	1.49	3.12	3.24	2.38	1.19	1.92	20.36
	t	10.16	7.31	5.59	5.02	9.09	10.71	8.04	7.22	6.34	
		**	**	**	**	**	**	**	**	**	
상냥하다 — 무뚝뚝하다	$\bar{x}$	4.40	5.23	4.13	5.80	4.56	5.40	3.73	5.03	4.78	43.06
	$\bar{x}$	3.30	4.80	1.90	3.00	2.95	4.85	2.98	5.41	3.08	32.27
	차이	1.10	.43	2.23	2.80	1.71	.55	.75	— .38	1.70	10.79
	t	5.10	4.38	7.51	9.75	6.78	3.88	4.28	4.63	4.70	
		**	**	**	**	**	**	**	**	**	
강하다 — 약하다	$\bar{x}$	3.15	4.95	3.72	4.85	3.95	4.28	2.77	4.97	4.92	37.56
	$\bar{x}$	4.29	4.23	2.95	3.64	3.46	5.36	3.03	5.31	3.69	35.96
	차이	-1.14	.72	.77	1.21	.49	-1.08	— .26	.34	1.23	1.60
	t	5.45	3.91	3.90	5.72	3.54	4.95	3.67	2.72	7.37	
		**	**	**	**	**	**	**	**	**	

** $P < .01$

표 10. “따뜻하다 - 차갑다”와 다른 특성쌍들 사이의 인상형성의 차

특성		인상차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합 계
인자하다	평균차	-1.6	-1.97	1.76	1.19	-.83	-1.15	-.81	-1.04	-.90	-3.91
	t	2.50	3.49	3.51	2.98	.80	4.63	1.70	5.07	2.80	
악독하다 (n = 36)	평균차	1.12	1.44	-.07	-.12	.58	1.54	.82	.53	-.68	5.16
	t	5.27	1.65	.10	1.48	1.92	5.27	2.25	1.25	.41	
강하다	평균차	3.36	1.15	1.39	1.47	1.80	3.17	1.83	.49	-.21	14.45
	t	4.48	2.05	3.83	2.76	5.24	3.67	1.73	.93	1.38	
약하다 (n = 37)	평균차	1.98	2.09	1.36	2.04	1.78	1.81	1.11	.35	.60	13.12
	t	6.60	5.53	4.39	5.29	4.36	6.29	4.97	.56	1.79	
중 · 고 동창	평균차	1.32	1.05	2.01	2.56	1.32	.87	.75	-.58	-.39	8.91
	t	5.05	2.65	5.43	4.85	2.55	2.00	1.04	2.46	.16	
관련없음 (n = 38)	평균차	1.32	1.05	2.01	2.56	1.32	.87	.75	-.58	-.39	8.91
	t	5.05	2.65	5.43	4.85	2.55	2.00	1.04	2.46	.16	
나의 형제	평균차	1.32	1.05	2.01	2.56	1.32	.87	.75	-.58	-.39	8.91
	t	5.05	2.65	5.43	4.85	2.55	2.00	1.04	2.46	.16	
나의 방해자 (n = 37)	평균차	1.32	1.05	2.01	2.56	1.32	.87	.75	-.58	-.39	8.91
	t	5.05	2.65	5.43	4.85	2.55	2.00	1.04	2.46	.16	

다. 즉, 中心特性은 評價値의 극단성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研究Ⅲ：單位關係의 強度가 偏見에 미치는 影響

사회심리학에서 집단간 또는 인종간 관계는 중요한 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주제는 특히 편견이라는 제하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편견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 부정적인 적대감이나, 반감이나, 선입관적이거나, 고정관념적이거나, 비호의적인 태도, 감정 또는 행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져 왔다(Ehrlich, 1973 참조).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편견의 결정요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여 왔다. 편견의 결정요인들로서 중요하게 취급되어 오고 있는 변인은 인종(race)과 신념(belief)의 변인이며 연구자들에 따라 인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측과 신념이 인종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측으로 구분되고 있다.

人種의 변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은 것은 Triandis와 Triandis (1960), Triandis (1961), Triandis와 Triandis (1965) 및 Ames와 Sakuma (1969)의 연구가 있다. Triandis와 Triandis (1960)의 연구에서는 인종, 직업, 종교 및 국적의 4個 변인을 要因設計를 사용해서 사회거리점수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에서 변량의 비율은 人種(77%), 직업(17%), 종교(5%) 및 국적(1%)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人種의 變因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Triandis (1961)의 연구에서도 앞의 연구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서 人種의 변인이 편견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결과를 얻었고, 그 다음이 직업, 철학 및 종교의 순으로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Ames와 Sakuma (1969)의 요인분석적 연구에서도 인종이 개인적 거리의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Triandis, Davis 및 Takezawa (1965)의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및 그리스에 있는 피험자들을 연구하여 人種 변인이 미국인들에서만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발견하였다. 즉, 美國人들에 대해서 사회거리의 결정요인은 인종, 직업, 종교 및 국적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獨逸人들에서는 직업, 종교, 인종 및 국적의 순으로 나타났고, 日本人들에서는 직업, 인종, 국적 및 종교의 순으로 나타

났고, 그리스인들에서는 종교, 인종, 직업 및 국적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riandis의 연구는 人種, 변인의 특출성이 가장 큰 美國人들에서 人種이 편견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됨을 증명하였다. 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Rokeach (1960)는 자신의 독단성(dogmatism)과 편견이론에서 人種에 근거된 사람들의 차별대우는 특수 문제들에 대한 신념 일치(belief congruence)에 근거된 차이일 것이라고 제안하여 편견의 기본적인 바탕은 신념의 유사성 요인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와 그의 동료들(Rokeach, Evans 및 Smith, 1960)의 연구에서는 흑백 인종과 8개 이슈(공산주의, 인종차별, 의료의 사회화 등)에 대한 신념이 타인을 친구로 삼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人種보다도 信念의 類似性이 편견의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결과를 얻어서, 자기들의 이론이 지지 받았다고 결론지었다. Byrne과 Wong (1962)의 연구에서는 흑백 인종과 태도(26개 의견문항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를 변화시켜서 Byrne (1961)의 대인판단 척도에 판단시킨 결과, 人種의 效果는 없었고, 인종보다 信念의 유사성이 편견의 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발견하였다. Stein, Hardyck 및 Smith (1965)는 信念의 유사성을 Byrne式으로 변화시키고, 人種을 변화시켜서 대인적 친밀성지각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Rokeach 등(1960)과 Byrne과 Wong (1962)의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얻었다. 즉, 비록 人種의 변인의 效果가 유의하였으나 信念 類似性이 편견의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11개 行動意圖의 種類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비록 9개의 行動意圖에서는 人種보다 信念 類似性이 더 중요하였지만, 저녁식사에 대한 초대와 자기 누이동생과의 데이트에 대한 허용에서의 의도에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편견의 주 결정요인이 人種이나 아니면 신념이나하는 의문에 대한 이상의 연구결과들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들은 행동의 종류나 행동적 상황에 따라 결정요인이 다르다는 것이다. Triandis 등(1965)의 연구에서는 편견의 결정요인이 나라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Stein 등(1965)의 연구에서도 행동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거리점수에 대한 신념과 인종의 영향이 달랐다. 예컨대, 사교집단의 멤버로 삼는다, 학교에서 옆자리에 앉는다,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로

삼는다, 등에서는 인종의 效果는 없고 신념유사성의 效果가 유의한 반면에 저녁식사에 집으로 초대한다, 내 여동생이나 남동생과 데이트하게 한다, 등에서는 인종의 요인이 더 유의한 차이를 일으켰다 이러한 결과들은 편견의 결정요인들이 상황에 따라 관련성이나 중요성을 달리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국적이나 인종, 직업, 종교나 신념 등이 상황에 따라 효과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드릴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저 변인이나 과정을 더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들에서는 인종, 국적, 직업, 신념의 유사성 등의 변인을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別個의 범주나 要因으로 취급하였다. 그리고 이 別個의 변인들의 매개적 또는 공통적 과정을 고려함이 없이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만을 검토하여 왔다. 그러나 인종, 국적, 직업 등의 요인은 엄격히 말해서 사회학적 변인이지만 심리학적 변인은 아니다. 더우기 그러한 요인들이 상황에 따라 편견에 달리 작용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들 변인의 심리학적 의미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미 본 연구의 출발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함께 속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것은 사회적 지각의 측면에서 단위관계이다. 그리고, 국적이나 인종, 직업, 종교적 유사성, 혈연, 지연, 학연 등은 단위관계를 지각케 하는 特性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特性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성이나 중요성이 바뀌게 된다.

단위관계의 적절성(relevance)이나 중요성(importance)의 측면을 고려하게 되면, 우리는 Triandis 등(1965)과 Stein 등(1965)의 연구결과들을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의 결과가 나라에 따라, 행동의 종류나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그러한 변인의 단위관계지각에 대한 적절성이나 중요성이 상황에 따라 또한 바뀐다는 것을 나타낸다(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종변인과 비교되어온 신념변인의 피해자에 대한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은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미 Heider(1958)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단위관계의 지각은 주위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국민이라든가 해외에 나가서 만나게 되면, 국내에서 만날 때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편견의 연구에서 취급되어온 변인들이 단위관계적 특성을 갖는다고 분석하였고, 그러한 특성의 지각은 상황에 따라

강약이 다를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상황에 따른 단위관계 지각의 차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연구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연구는 상당한 노력과 창의성을 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효과를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은 각 변인의 간격을 증감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人種, 職業, 宗教의 세 변인에 대해 단위관계 차원상에서의 거리를 변화시켜서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人種은 흑인, 백인 및 황인의 세 범주를 사용하였고, 職業은 농마주이, 회사원 및 대학생의 세 범주를 사용하고, 宗教는 이슬람교, 종교없음 및 기독교의 세 범주를 사용하였다. 각 변인의 단위관계의 거리가 가까운 조건보다 먼 조건에서 그 변인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가설이 되었다.

方 法

被驗者 全北大學 심리학과 2학년, 1학년의 역사철학 및 사회심리 계열의 총 140명 학생이 본 연구의 피험자가 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20명의 자료는 반응누락 및 지시 불이해로 제거되었고, 다른 30명은 실험에서 사용된 단위관계 지각요인의 사회적 거리와 단위관계지각 점수를 평정하여 실험변인 선정의 적절성을 판단한 집단이 되었다. 실제 실험의 피험자는 총 90명으로서 세 조건에 각각 30명씩 있게 되었다.

材料 및 節次 ㉑ **單位關係要因의 選定** :-본 연구에서는 인종, 직업 및 종교의 단위지각 요인들의 간격을 크거나 작게 조작함으로써 單位關係知覺이 편견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 세 要因의 간격을 각각 3단계로 나누어, 要人 內의 간격을 크거나 작게 만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인종에서는 단위관계의 강도에 비추어 한국인 피험자에게 가장 강한 황인종을 선정하였고, 그보다 약한 대상으로는 백인종과 흑인종을 선정하였다. 직업으로는 학생들이 소속한 대학생, 대부분의 학생들이 앞으로 원할 것으로 추정된 회사원, 아주 컸다.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농마주이의 셋을 선정하였다. 종교는 많은 학생들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종교없음과 기독교를 선정하였고, 멀게 느껴지는 종교로는 이슬람교를 택하였다.

이러한 9개 單位知覺要因 각각에 대해 30 명의 판단자를 사용해서 사회적 거리와 단위관계지각을 평정시킨 결과는 표 11과 같다(두 가지 반응척도에 대해서는 이하의 설명을 참조할것).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종요인에서 황인종, 백인종 및 흑인의 순으로 사회적 거리 점수와 단위관계지각 점수가 나타났다. 직업요인에서 단위관계지각 점수가 대학생, 회사원 및 농마주이 순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거리 점수는 회사원과 대학생이 비슷하고 농마주이는 가장 거리가 컸다. 종교요인에서는 사회적 거리 점수와 단위관계지각 점수 모두가 기독교, 종교없음 및 이슬람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에서 강·약 條件을 만들기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실험에서는 세 조건(I, II, III)을 사용하였다. I 조건에서는 單位關係의 간격을 모두 작게하여 그 효과를 알아 보려하였고, 따라서 인종에서는 황인종—백인종의 쌍을, 직업에서는 대학생—회사원 쌍을, 종교에서는 종교없음—기독교의 쌍을 사용하였다. II 條件에서는 單位關係의 간격을 모두 크게 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려 하였고, 따라서 인종에서는 황인종—흑인의 쌍을, 직업에서는 대학생—농마주이 쌍을, 종교에서는 종교없음—이슬람교 쌍을 사용하였다. III 條件에서는 인종과 직업 요인들의 간격은 I 條件처럼 작게하였고, 종교요인의 간격은 II 條件처럼 크게 하였다.

피험자들에게 제공된 질문지의 상단에는 人種, 職業 및 宗教의 세 요인의 조합(예: 황인종, 대학생, 기독교)으로 이루어진 자극인물이 제시되어 있었다(單位關係 知覺의 強弱의 변인과의 조합으로 모두 8個의 組合이 있게 되었다). 자극인물 아래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느껴지는 社會的 距離와 單位關係의 程度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제시되어 있었다.

사회적 거리 측정 척도는 Triandis와 Triandis (1960)가 사용한 척도를 번역해서 사용하였는데, “결혼을 할 수 있다”에서 “두들겨 패주겠다”에 이르는 15個의 진술문으로 되어있고 응답은 “예”와 “아니오”로 되어있다. 단위관계지각 정도는 연구 I에서 사용하였던 6個 척도를 사용하였고 각 척도는 -3에서 +3에 이르는 7점척도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질문지에는 지시문 2매와 인물자극과 그에 대한 응답을 위한 응답척도가 들어 있는 8매의 응답지로 구성되었다. 실험은 교

표 11. 各 對象에 대한 사회적 거리 및 단위관계 점수의 평균치와 표준편차

대 상		사회적거리		단 위 관 계 점 수										평 균의	
				점 수		나와가깝다 나와 멀다		나와관계가 없다 나와관계가 있다		좋아할것같다 싫어할것같다		나를방해한다 나에게 적이다		나와 같은 온정이 나와 다른 온정이	
				$\bar{x}$	SD	$\bar{x}$	SD	$\bar{x}$	SD	$\bar{x}$	SD	$\bar{x}$	SD	$\bar{x}$	SD
인 종	황 인 종	1.68	1.75	6.40	1.17	6.20	1.17	6.13	1.22	6.03	1.21	5.70	1.10	6.17	0.87
	백 인	2.56	2.15	3.30	1.73	3.70	1.37	4.00	1.18	4.93	1.11	4.60	0.84	3.87	1.24
	흑 인	4.49	2.82	3.00	1.41	3.53	1.27	3.87	1.22	4.23	1.19	4.33	0.72	3.57	1.40
직 업	대 학 생	2.28	2.07	6.27	1.14	6.13	1.16	6.13	1.19	5.93	1.33	5.80	0.94	6.00	0.96
	회 사 원	1.73	1.70	4.50	1.57	4.77	1.22	4.90	1.30	4.93	1.38	4.97	0.73	4.63	1.12
	넉마주이	5.30	2.99	2.63	1.50	3.13	1.51	3.40	1.28	3.77	1.30	4.10	0.75	3.53	1.35
종 교	종교없음	2.08	1.79	4.60	2.27	4.53	1.98	4.87	1.68	5.07	1.20	4.73	1.14	4.23	1.73
	기 독 교	1.93	1.80	4.90	1.99	5.03	1.73	5.07	1.82	5.43	1.45	5.30	1.39	4.90	1.74
	이슬람교	4.67	3.54	2.60	1.60	2.77	1.58	2.73	1.62	3.73	1.54	3.73	1.14	3.07	1.61
합 계															

표 12. 各 對象에 대한 사회적거리 점수의 평균치, 표준편차 및 차이

조 건	인		종		직		업		종		교	
	황 인 종	백 인	황 인 종	백 인	대 학 생	회 사 원	대 학 생	회 사 원	종교없음	기 독 교	종교없음	기 독 교
I	$\bar{X}$ 8.44 (2.11)	14.95 (3.74)	t	** 3.79	11.38 (2.85)	11.60 (2.90)	t	.44	12.20 (3.05)	11.22 (2.81)	t	1.37
	SD 7.34	9.12			6.91	7.56			6.91	7.36		
II	황 인 종	흑 인	t		대 학 생	냉 마 주 이	t		종교없음	이슬람교	t	
	$\bar{X}$ 15.14 (3.79)	22.77 (5.69)	** 6.81		14.33 (3.58)	24.00 (6.00)	** 7.92		18.05 (4.51)	20.08 (5.02)		1.85
III	SD 5.83	7.67			5.29	8.34			6.62	7.15		
	황 인 종	백 인	t		대 학 생	회 사 원	t		종교없음	이슬람교	t	
	$\bar{X}$ 11.16 (2.79)	15.60 (3.90)	** 3.96		13.89 (3.47)	13.78 (3.45)	.16		11.67 (2.92)	16.18 (4.05)	*	2.30
	SD 7.28	9.84			6.55	7.13			6.41	10.61		

a. () 안의 수치는 평균을 조합의 수 4로 나눈 수치임.

* $P < .05$

** $P < .01$

표 13. 各 對象에 대한 단위관계 점수의 평균치, 표준편차 및 차이

조 건	인	총	직		업	종		교
			대 학 생	회 사 원		종교없음	기 독 교	
I	황 인 종	백 인	$\bar{X}$	$\bar{X}$	t	t	t	t
	128.57(32.14)	91.93(22.98)	118.47(29.62)	105.00(26.25)	** 7.29	112.77(28.19)	109.87(27.47)	1.02
	SD	35.70	14.73	23.02		40.98	20.74	
II	황 인 종	흑 인	$\bar{X}$	$\bar{X}$	t	t	t	t
	104.50(26.13)	73.43(18.36)	102.23(25.56)	76.60(19.15)	** 9.19	94.00(23.50)	83.47(20.87)	** 3.14
	SD	22.63	18.37	23.44		21.80	22.40	
III	황 인 종	백 인	$\bar{X}$	$\bar{X}$	t	t	t	t
	115.47(28.87)	86.73(21.68)	106.40(26.60)	95.27(23.82)	** 7.37	112.07(28.02)	89.13(22.28)	** 7.34
	SD	24.15	19.28	18.22		21.52	18.06	

a. () 안의 수치는 평균을 조합의 수 4로 나눈 수치임.

**P < .01

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질문지의 무선적 배부에 의해서 세 조건에 대해 피험자들이 무선적으로 배정되게 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40 분이였다.

結果 및 論議

피험자들의 8個 자극인물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단위관계지각 점수는 二元分類의 방법에 의해서 각각 인종, 직업 및 종교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각 인물대상에 대한 점수들은 4個의 인물자극이 합쳐진 것이다. 세 실험조건별, 인종, 직업 및 종교에 따른 자극인물의 사회적 거리 점수의 평균치와 요인내 차이는 表 12에 제시되어 있고 단위관계지각 점수의 평균치와 요인내 차이는 表 13에 제시되어 있다. 表 12에서와 같이 사회적 거리 점수에서는 I條件에서는 직업과 종교의 요인의 영향은 유의치 않았고 인종의 영향만이 유의하였다 ($t = 3.79$, $df = 29$, $p < .01$). II條件에서는 인종 ($t = 6.81$, $df = 29$, $p < .01$)과 직업 ($t = 7.92$, $df = 29$, $p < .01$)要因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종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이 차이의 경향만을 나타내었다 ($t = 1.85$, $df = 29$, $p < .10$). III條件에서는 인종 ($t = 3.96$, $df = 29$, $p < .01$)과 종교 ($t = 2.30$, $df = 29$, $p < .05$) 요인이 유의한 영향이 있었고, 직업요인은 영향이 없었다. 세條件을 함께 比較해 보면, 인종은 세 조건 모두에서 유의하였으나, 특히 II條件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직업에서는 II條件만이 유의하였고, 다른 두條件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종교에서는 III條件에서만 차이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은 사회적 거리 점수에서 지지 받았다.

세條件에서의 인종, 직업 및 종교요인별 單位關係知覺 점수의 평균치와 차이를 表 13에서 보면, I條件의 宗教 요인을 제외하고는 모든條件과 모든要因들에서 차이가 1%水準에서 有義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 점수보다도 단위관계지각 점수가 더 敏感한 사회적 반응 측정치가 되는 것 같다. 차이의 크기를 t值를 중심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 점수에 대한 결과와 매우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즉, 人種에서는 II條件의 t值가 가장 컸고 다른 두條件의 t值는 서로 비슷하였다. 職業에서는 역시 II條件의 t值가 가장 컸고 다른

두 條件은 서로 비슷하였다. 宗教에서는 III 條件이 t 値가 가장 컸고 다음이 II 條件이고, I 條件에서는 차이가 유의치 못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II 條件의 t 値가 가장 크고, 특히 III 條件에서 宗教 요인의 영향이 가장 큰 결과는 사회적 거리 점수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특히 III 條件에서의 宗教要因의 영향이 II 條件의 宗教要因의 영향보다 더 컸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한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편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실험에서 검증되어지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에서 검증되어지는 要因이 組合 방식에 의해서 비교되어질 때에는 要因들의 相對의 중요성이나 要因 內의 거리에 주의할 必要가 있다.

條件間의 要因의 영향 差異를 比較하기 위해서 각 條件에 있는 각 피험자의 要因 內의 차이를 계산하고, 조건간 차이의 평균치와 t 値를 계산한 것이 表 14와 15이다. 表 14의 사회적 거리 점수를 보면, 직업요인에서만 II 條件과 다른 條件들 사이의 차이가 1% 水準에서 유의하였다. 다른 要因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직업요인에서만 차이가 유의한 것은 직업요인 내의 단위지각 거리의 차이가 가장 큰 데에 기인될 수 있다. 요인별 대상에 대한 사회거리 점수를 表 11에서 보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점수를 기준으로 볼 때에 흑인종과 황인종 사이는 차이가 2.81이었고, 종교없음과 이슬람 사이는 차이가 2.59이었고 대학생과 넝마주이의 차이는 3.02이었다. 이 점수차가 보이는 바와 같이 요인내에서의 척도거리가 실험에서의 要因의 영향을 결정지워 주는 것 같다.

表 15의 단위관계 지각 점수의 요인내 차이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보면 表 14와 비슷한 양상이다. 특히 앞에서와 같이 직업 요인에서 II 條件과 다른 두 條件 사이의 차이가 모두 1% 水準에서 유의하였다. 사회거리 점수에서와 같이 원래의 單位關係 평정점수의 합계를 보면, 황인종과 흑인 사이의 차이가 14.10이었고, 종교없음과 이슬람교가 9.40이었고, 대학생과 넝마주이의 차이는 15.70으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에서 조작된 요인내 거리(여기에서는 사회적 거리와 單位關係 知覺 거리)가 연구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單位知覺 점수(사회적 거리 점수도 일종의 단위관계 지각 요인에 속한다)

表 14 . 사회적 거리 점수의 조건간 요인별 평균치 차이의 차이

조 건	인 종		직 업		종 교	
	평균치의차	t	평균치의차	t	평균치의차	t
I - II	- 1 .38	1 .26	- 9 .44	7 .20**	- 1 .31	1 .08
II - III	2 .72	1 .63	9 .55	6 .85**	- 2 .49	. 14
I - III	1 .34	1 .08	. 11	1 .11	- 3 .80	1 .87

** P < . 01

表 15 . 단위관계 점수의 조건간 요인별 평균치 차이의 차이

조 건	인 종		직 업		종 교	
	평균치의차	t	평균치의차	t	평균치의차	t
I - II	2 .23	.66	12 .16	2 .89*	7 .63	1 .74
II - III	2 .34	.45	15 .10	4 .17**	12 .07	.84
I - III	4 .57	.76	2 .94	.73	19 .70	4 .71**

** P < .01

가 人種, 직업, 종교와 같은 사회학적 변인의 기저 변인이 됨을 나타내 준다고 해석될 수 있다.

綜合的 論議

본 연구에서는 社會的 知覺의 重要次元으로서 單位關係 知覺의 개념을 다루려 하였고, 이 心理的 次元은 社會心理學에서 지금까지 광범하게 연구되어온 評價的 次元이나 好感的 次元보다 더 폭넓고 일반적인 성질의 차원이 된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研究 I 에서는 單位關係의 測定可能性을 탐색하였다. 먼저 단위관계

를 지각하게 만드는 要因들을 理論的 바탕에서 選定하였다. 이들 要因은 대부분이 이미 Heider (1958)가 지적한 것이었는데, 類似性, 近接性, 因果性, 所有, 共同運命, 過去經驗, 親熟性이나 相互作用, 好感 등의 要因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이들 要因을 바탕으로 예비적으로 6個의 양극 單位關係尺度를 선정하였다(협조한다—방해한다, 같은 운명이다—다른 운명이다, 비슷하다—다르다, 관계가 있다—관계가 없다, 가깝다—멀다, 좋아한다—싫어한다). 이들 척도를 사용해서 국적 및 인종, 자연, 혈연, 학연, 직업, 연령 및 종교의 6個 영역에서의 총 131 개의 단위지각 대상들에 대한 평정을 얻었다. 이들 척도를 사용한 평정치는 단위지각 대상들을 잘 변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영역의 15個 대상에 대한 단위관계지각 총점과 각 척도간의 相關은 모든 척도에 대해서 매우 높게 나왔다($r = .67 \sim .87$). 특히 좋아한다—싫어한다의 척도가 다른 척도들보다 더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지 않아서 단위관계 측정치의 독특성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單位關係에 관련된 연구의 기본자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으며, 태도나 사회적 지각 및 행동 變因과 單位知覺 要因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상세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한국인은 情이 많다” “한국인은 합리나 제도보다도 감정적이다”라는 등의 진술이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진술의 배후를 다시 분석해보면, 과거의 학교동창, 한 동네 사람, 동일한 姓氏의 사람, 함께 고생했던 사람,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사람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배려가 많다는 것이 내포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特徵들은 본 연구에서 다룬바와 같이 單位知覺 特性들이다. 따라서 한국 사람은 외국인들 보다도 이러한 單位知覺 要因들을 더 重視하거나, 이러한 要因들에서 더 강한 單位關係를 지각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研究Ⅱ와 Ⅲ에서는 單位關係 要因이 社會的 知覺이나 偏見과 같은 폭넓은 영역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研究Ⅱ는 지금까지 광범하게 연구되어온 性格特性이나 身體的 外貌 등의 要因만이 印象形成의 主 決定要因이 아니고, 單位關係 要因도 重要的 決定要因이 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Asch (1946)와 Kelley (1950)의 방법에 따라 單位關係 特性들과 性格特性들의 印象形成에 대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그 결과

나의 형제이다 — 나의 방해자이다와 나의 중·고등학교 동창이다 —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와 같은 單位關係의 特性들이 차이있는 印象을 형성시켰다. 그러나 Asch (1946)가 中心特性으로 간주하였던 따뜻하다 — 차갑다의 特性에 비해서 이들 단위관계 특성의 영향은 弱하였다. 또한 상냥하다 — 무뚝뚝하다나 강하다 — 약하다의 특성도 따뜻하다 — 차갑다의 특성보다 인상형성에 약하게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따뜻하다 — 차갑다의 特性이 唯一한 中心特性은 못되는 것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單位關係 特性들보다 더 호오도치가 극단적인 特性, 예컨대, 나의 어머니 — 나를 고의로 폭행한 사람과 같은 特性을 사용한다면 따뜻하다 — 차갑다 特性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은 따뜻하다 — 차갑다 特性보다 더 극단적인 評價値를 갖는 인자하다 — 악독하다 特性의 인상형성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여 지지받았다. 즉, 따뜻하다 — 차갑다 특성보다도 인자하다 — 악독하다 특성이 인상형성의 차이를 더 크게 일으켰다. 이러한 결과는 單位關係의 개념을 빌려서 설명될 수 있다. 이미 Heider (1958)나 Jordan (1968)의 주장한 바와 같이 好感要因은 單位關係 知覺要因이다. 한편, 성격특성 형용사들은 好感形成 要因들인고로, 성격특성 형용사들은 또한 單位關係 知覺要因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印象形成에 영향을 주는 모든 要因들이 單位關係 知覺의 媒介過程을 통해서 印象形成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할 수 있다.

研究Ⅲ에서는 편견의 결정요인에 관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일정치 못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 理由를 규명하려 하였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의 주 논쟁점은 편견에 대한 인종과 신념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변인들의 영향은 상황이나 행동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인종이나 국적, 직업의 要因들은 社會學的 變因이지 心理學的 變因이 못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의 영향은 單位關係 知覺이라는 心理的 過程을 통해서 편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單位知覺의 程度를 실험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인종, 직업 및 종교의 요인 내의 간격을 크거나 작게 만들어서, 이들 요인이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

결과一致되게 要因 內 단위지각 점수의 거리가 클수록 편견에 더 큰 영향을 줌을 증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편견에 대한 인종, 직업 종교, 신념유사성의 변인들의 영향은 單位關係 知覺을 媒介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尹鎬允, 韓國語形容詞의 好惡度測定 : 性格特性을 나타내는 形容詞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文理大學報, 1970, 16, 113 - 116.
趙婉鎬, 對人評價次元의 二元性에 關한 研究 : 好惡性과 和親性, 서울大學校 博士學位 請求論文, 1982.

Ames, R.G., Sakuma, A.F. Criteria for evaluating others; A reexamination of the Borgardus Social Distance Scale.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1969, 70, 393-400.

Anderson, N.H. Test of model for opinion chang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9, 59, 371-381.

Anderson, N.H. Averaging versus adding as astimulus combination rule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965, 70, 393-400.

Anderson, N.H. Likableness ratings of 555 personality trait wor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8, 3, 272-279.

Asch, S.E. Forming impres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41, 41, 258-290.

Baron, R.A. & Byrne, D. *Social Psychology: Understanding human interaction*. Boston: Allyn and Bacon, 1982.

Berscheid, E., Boye, D. & Darley, J.M. Effect of forced association upon voluntary choice to associat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8, 8, 13-19.

Byrne, D. Interpersonal attraction and attitude similar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1, 62, 713-715.

- Byrne, D. & Wong, T.J. Racial prejudice, interpersonal attraction and assumed dissimilarity of attitud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2, 65, 246-253.
- Ehrlich, H.J. *The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3.
- Festinger, L.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Univ. Press. 1957.
- Festinger, L., Schachter, S., & Back, K. *Social pressures in informal groups: A study of human factors in housing*. New York: Harper & Row, 1950.
- Fiske, S. How do I know thee: A review of inter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Unpublished manuscript. Harvard University.
- Freedman, J.L., Sears, D.O., & Carlsmith, J.M. *Soci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1.
- Heider, F.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 New York: Wiley, 1958.
- Heider, F., & Simmel, M. An experimental study of apparent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944, 57, 243-259.
- Jordon, N. Cognitive balance as an aspect of Heider's cognitive psychology. In R.P. Abelson et al. (Eds.), *Theories of cognitive consistency: A sourcebook*. Chicago: Rand McNally & Company, 1968, 99, 169-178.
- Kelley, H.H. The warm-cold variable in the first impression of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1950, 18, 431-439.
- Mirels, H., & Mills, J. Perception of the pleasantness and competence of a partne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4, 68, 456-459.
- Osgood, C.E., Suci, G.J., & Tannenbaum, P.H.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 of Illinois, 1957.
- Rokeach, M. (ed.). *The open and closed mind*. New York: Basic Books, 1960.
- Rokeach, M., Evans, R.I., & Smith, P.W. Two kind of prejudice or one? In Rokeach, M. *The open and closed mind*. New York: Basic Books, 1960, 99, 132-168.

- Rosenberg, S., Nelson, C., & Vivekananthan, P.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0, 16, 619-626.
- Stein, D.D., Hardck, J.A., & Smith, M.B. Race and belief: An open and shut ca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5, 1, 281-289.
- Triandis, H.C. A note on Rokeach's theory of prejudi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1, 62, 184-186.
- Triandis, H.C., Davis, E.E. & Takezawa, S. Some determinants of social distance among American, German and Japanes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5, 2, 450-546.
- Triandis, H.C., & Triandis, L.M. Tace, social class, religion and nationality as determinants of social dista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0, 61, 110-118.
- Triandis, H.C., & Triandis, L.K. Some studies of social distance. In Steiner, I.D. and M. Fishbein (Eds.), *Current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 Tyler, T.R., & Sears, D.O. Coming to like obnoxious people when we must live with th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7, 35, 200-211.

ABSTRACT

MEASURES OF THE STRENGTH OF UNIT RELATIONS AND THE EFFECTS OF UNIT RELATION UPON THE IMPRESSION FORMATION AND PREJUDICE

Hong, Dae-Shik

Department of Psychology, Jeonbug National University

It was assumed that the concept of unit relation has more broad and meaningful status than the concept of evaluation or liking in the area of social perception and attitude. Three studies were performed under this

assumption. The first study concerned with the measurement of unit relation. Six preliminary scales were selected to measure the strength of unit relation under the theoretical basis. Total 131 unit relations were rated. The validity of the six scales were tested by the item-total score correlation. The range of correlation was .67-.81. In the second study, the influence of the unit relation traits upon the impression formation was studied. The unit relation traits had significant influence upon the impression formation. In the third study, it was hypothesized that the determinant of prejudice will be perception of unit relation. According to this hypothesis, the distance of three areas (race, vocation and religion) were manipulated. It was found that a greater distance of unit relation has greater influences upon the prejudice.